

오늘 2부 예배 후 교육관에서 임원회가 있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 중삼층 유아실에서 사회봉사부 회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봉사부에서 부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사회봉사부와 사무실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 주일(5월1일)은 교회설립기념주일입니다. 오후1:30에 정호진 목사님을 모셔서 특강 [세계의 마을들과 친구 되기]를 듣습니다.

미자립교회를 돕기 위한 초록장터가 다음 주일에 열립니다. 이웃과 나눌 가정용품, 의류, 장난감, 육아용품 등을 초록가게에 기증해 주세요.

지진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들을 돕기 위해 다음 주일에 재해구호헌금을 드립니다.

5월 3일부터 이범석 목사가 <사도행전>을 강의합니다. 강의는 6월말까지 진행합니다. 수강을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비윤리적 기업이 생산한 제품은 구매하지 맙시다.

시편 124:1~8

오늘 식당 봉사 : 백혜숙 백성래 정현숙 박미연 이수자 이성범
 다음 주 식당봉사 : 박효선 허정운 홍복선 김현주 김문주 조우석 이민범 한성건
 오늘설거지봉사 : 청파1숙
 다음주설거지봉사 : 2남선교회
 커피 판매 봉사 : 7여선교회
 떡 대 접 : 한상의 정영선
 커 피 대 접 : 오숙현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 아 부	10:50	유아부실	1부 예배	09:30	대예배실
유 처 부	10:50	유처부실	2부 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성서학당	13:30	대예배실
중고등부	10:40	중고등부실	수요집회	11:00	교육관
청 년 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우리를 주님의 몸으로 삼으소서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주일 낮 예배 순서

【 부활절 제5주 】 인도 1부 : 이범석 목사
2부 : 김재흥 목사

전 주 반주자
임재의 기원 주님 나라는(×3) 다 함께
예배로의 부름 인도자

♣ 경배의 찬송 19. 찬송하는 소리 있어 다 함께

♣ 공동기도 다 함께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 삶의 터전이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일본과 에콰도르의 지진피해민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갑작스런 지진으로 가족과 삶의 터전을 잃고 고통당하는 그들을 위로해 주십시오. 일순간에 무너져버린 일상과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들의 영혼 속에 새로운 힘을 불어넣어주십시오.

주님, 생명보다 이윤을 중히 여기는 이 사회를 꾸짖어주시고, 유해한 것을 무해한 것으로 속여서 판매한 기업을 벌하여주십시오. 원인도 모른 채 죽어간 이들의 영혼을 받아주시고 그 가족들의 상처 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십시오. 기업들이 책임을 회피하지 않게 하시고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 참회의 침묵기도 다 함께

♣ 위로의 말씀 계21:3b,4 인도자

♣ 교 독 문 9. 시편 15편 다 함께

♣ 영 광 송 1. 만복의 근원 하나님 다 함께

2부대표기도 김정민 장로

2부응답송 찬양대

2부찬양 312.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다 함께

♣ 성경봉독 룻 2:5-13 I. 인도자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봉독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함께

찬양 1.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로다 5여선교회

II. 길이 살겠네 찬양대

말씀 차이보다 중요한 것 김기석 목사

거듭기도 다함께

· 헌금 영수기 및 속회 보고 ·

십일조 및 월정헌금

강신철	이혜경	곽상준	최경미	김명순	이교영	김문주	김세진	김애순	김영순
김운수	박상호	김주영	김중현	성귀옥	김지현	김철수	유영남	김현동	오유경
김희진	박홍재	박병구	박예림	박준희	이기분	백성래	변재민	이소혜	서원금
유상진	유은정	윤미경	윤성중	김윤정	윤수진	윤정덕	구성실	이광석	이경희
이광섭	김수연	이부곤	이유선	이재문	이준림	이치림	강상연	장원호	박성희
정원석	김현영	조순덕	최미자	최호숙	최옥분	최운선	최재욱	이수정	최현
허명선	허신열	허호범	박성실	홍성식	이유리	홍순구	안홍숙		

감사헌금

구성실	김금순	김해선	박병구	김인순	박원재	박재영	이현정	서미경	이수자
이순정	정선희	정현숙	조혜윤	진재관	추은총	허강린	허신열	강금연	황경순

제1남선교회 무명15

생일감사헌금

박병구 이은서

녹색꿈헌금

김남중 오복선 김성수 김주현 이미정 임선양 신현숙 임설희 홍순구 안홍숙 무명9

속명	인도자	모일 곳	속명	인도자	모일 곳
예루살렘	박성희	유중희	청파1속	김재흥	교회
안디옥	최경미	이재문	청파2속	송형운	
가나안	장영숙	야외	청파3속	하현철	
베다니	박홍재	백묘현	청파4속	김정민	
시온	권미숙	권미숙	청파5속	장영숙	
에베소	백혜숙	이봉옥	청파6속	신진식	
빌립보	곽권희	김재광	청파7속	김재환	
가버나움	안홍숙	정현주	청파8속	이범석	
나사렛	김경혜	김경혜	청파9속	김인걸	
			청파10속	장영숙	

마음으로 읽는 글

구름의 산책

아빠 구름은 어떻게 울어?

나는 구름처럼 우르릉, 으르릉 짱! 얼굴을 붉히며,

오리는?

나는 오리처럼 꺽꺽, 냄새나고,

돼지는?

나는 돼지처럼 꿀꿀, 배가 고프,

젖소는?

나는 젖소처럼 음매, 가슴이 울렁거린다.

기러기는?

나는 기러기처럼 두 팔을 벌리고 기력기력.

그럼 돌맹이는?

갑자기

돌맹이를 삼킨 듯 울컥, 해졌다.

소리없이 울고 싶어졌다.

아빠, 구름은 우르르 짱 울어요?

- 이현승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홍 이범석 신진식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도사 : 장영숙
소속목사 : 한인철 한정애	
원로장로 :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구성실 조병무 방문성 윤석철	
장로 : 한완식 한상익 김인걸 박홍재 김정민 하현철	
지휘 : 강석남 안홍숙	반주 : 최윤선 김수진 유청빈
차량 및 교회관리 : 김현동	

2부찬 양 475. 인류는 하나 되게 다 함께

♣ 봉 헌 317.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1,5절) 다 함께

♣ 봉헌기도 인도자

공동체 소식 인도자

♣ 평화의 인사 다 함께

♣ 보냄의 말씀 다 함께

인도자: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보살피주시듯이 서로를 돌보며 사십시오. 특히 어려움에 처한 이에게 위로와 용기를 전하며 사십시오. 그것이 그 어떤 기준보다 중요합니다.

다함께: 아멘. 여러 인간적 기준에 얽매어 사람들을 돌보지 않고 살아온 지난날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듯이 우리도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도우며 살겠습니다. 인간적 차이를 넘어서 그의 고통에 다가서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동행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

♣ 찬 양 635. 주의 기도 다 함께

♣ 축 복 담임목사

주일 오후 집회	수요일 집회
청파성서학당 / 강의 : 김기석 목사	낮 집회 / 설교 : 김기석 목사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1부 김기석 목사	공동기도	인도자
	2부 김기석 목사	김기석 목사	박석희 집사	

4월	1부 영접위원	박미영 권미정
	1부 헌금위원	곽권희
	2부 영접위원	김정민 이국노 문홍일 이형숙 김민화 한상경 정연희
	2부 헌금위원	한완식 박성실

평화세상을 여는 녹색교회

쌀 한 톨의 무게는 얼마나 될까 / 내 손바닥에 올려 놓고 무게를 잰다
 바람과 천둥과 비와 햇살과 외로운 별빛도 그 안에 숨었네
 농부의 새벽도 그 안에 숨었네 / 나락 한 알 속에 우주가 들었네
 버려진 쌀 한 톨 우주의 무게를 / 쌀 한 톨의 무게를 재어 본다
 세상의 노래가 그 앞에 울리네
 쌀 한 톨의 무게는 생명의 무게 / 쌀 한 톨의 무게는 평화의 무게
 쌀 한 톨의 무게는 농부의 무게 / 쌀 한 톨의 무게는 세월의 무게
 쌀 한 톨의 무게는 우주의 무게

[홍순관 글 신현정 곡, 쌀 한 톨의 무게]

평화 노래꾼 홍순관 선생이 노래한 ‘쌀 한 톨의 노래’ 가사입니다. 작은 쌀 한 톨 그 하얀 가벼움 안에서 자연과 시간과 사람과 생명과 평화를 봅니다. 어디 쌀 한 톨에게서 만이겠습니까.. 시인의 감성으로 잠잠히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살펴보면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하여 계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신 하나님(엡4:6)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그리고 매년 말 발간하는 우리 교회의 목회보고서 겉지에는 청과감리교회라는 이름에 더해 “평화세상을 여는 녹색교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청과교회는 기독교환경운동연대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공동으로 선정한 대표적인 “녹색교회” 중 하나입니다. 녹색교회는 교회 녹화, 지구온난화 억제를 위한 실천, 생명밥상 빈 그릇 실천, 햇빛발전소 설치, 초록 가게 등 교회의 녹색실천에 앞장설 뿐만 아니라 교회의 예배, 교육, 봉사, 운영 등 교회에서 이뤄지는 모든 일에서 창조질서 보전을 실천하는 교회라고 기독교환경운동연대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과교회는 2000년 전교인 수양회 동안 지켜야 할 생활수칙으로 ‘음식물 남기지 않기’를 결정한 이후, 이를 일상 캠페인으로 확대하여

지금까지 꾸준히 실천해오고 있습니다. 배고픈 이웃을 돌보며 피조세계에 속한 모든 생명의 순환을 생각하면서 오늘의 식사를 감사함으로 먹고 또 깨끗이 비우는 것은 생명을 살리고 평화세상을 열어가는 그리스도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2008년 교회설립 100주년을 즈음하여 지붕에 들어선 햇빛발전소는 매년 약 3,600kwh의 청정에너지를 생산하며, 교회는 이를 통해 들어오는 수입 모두 에너지 빈곤층을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사용량을 줄여 나가는 노력과 함께 대체에너지를 개발하고 생산하는 일은 원자력의 위험으로부터 피조세계를 지켜 나가기 위한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생명실천이기 때문입니다.

지하 식당 한 칸에는 유기농 먹거리와 친환경용품을 판매하는 청과농도생협이 있습니다. 감리교 농도생협의 지부인 청과생협은 농촌교회 생산자와의 협동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질서 속에서 모든 생명들과의 연대가 가능한 바른 소비 생활 운동을 실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하에는 청과생협 뿐만 아니라 작지만 제법 근사한 청과초록가게도 있습니다. 기독교환경운동연대 초록가게 제5호점인 청과초록가게는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생각하며 자원을 재활용, 재사용하여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지구를 살려내는 착한 소비 생활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초록가게는 매년 봄 교회마당에서 초록장터를 엽니다. 올해는 5월1일에 열립니다. 필요한 것 이상으로 가진 의류, 신발, 가방, 액세서리, 장난감, 도서, 생활제품 등을 이웃과 나누고, 쓰지 않는 물건에 새로운 필요와 사용처를 찾아 재활용, 재사용 해주는 한바탕 즐거운 장터입니다. 여기서 생기는 수익금은 미자립교회를 지원하는데 모두 사용됩니다. 초록장터를 통해 신음하는 생명이 회복되고, 황폐해진 세상에 초록빛 생명이 되살아나며, 어두운 세상에 빛을 주는 교회가 굳건히 서는 꿈을 꿉니다. 그 꿈의 시작을 위해 장터 기증품을 초록가게에 보내주세요. “평화세상을 여는 녹색교회”인 우리 청과교회를 청과교회답게 해주는 초록장터에 많이 참여해 주세요.